

중반도체 일어서자, 코스피 주저앉았다

중국, 창신메모리 상장 돌풍 이어 노광장비 독자 개발도 성공
반도체주 흔들리며 코스피 10.8% 폭락… 일본·대만은 -4%

중국 반도체 자립이 가속화된다는 전망에 한국·일본 등 세계 반도체 주가가 폭락했다. 검은 화요일이었다.

28일 코스피는 10.8% 떨어진 6023.66으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6000아래로 내려오기도 했다. 코스닥은 7.7%하락했다. 이날 일본(-4%), 대만(-4.7%)등 아시아 증시도 크게 떨어졌다.

중국발 반도체 충격파가 세계 증시를 강타했다. 27일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CXMT)는 상장 첫날 공상은행을 제치고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CXMT가 조달한 자금으로 생산 시설을 늘리고 D램 기술을 고도화해 중국 반도체 자립을 앞당길 거라는 전망은 한국 등 경쟁 반도체 기업에 악재였다.

여기에 중국의 한 기업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리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디인

6,023.66
▼ 732.09 (10.84%)

포메이션)를 통해 중국이 이 장비 양산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네덜란드 기업 ASML만이 보유해 중국이 당분간 따라올 수 없을 걸로 봤던 이 기술을 중국이 개발했다는 소식에 반도체주가 도미노 폭락했다. 27일 유럽 증시에서 ASML(-8.4%)을 시작으로,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AMD·샌디

스크 등이 5~11% 줄줄이 하락했다. 28일 아시아 증시에선 삼성전자(-13.4%), SK하이닉스(-14.7%) 외에 일본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18.3%)와 대만의 TSMC(-3%)도 급락했다.

엔비디아발 자금 둘러막기 논란도 하락 폭을 더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가 오픈AI의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2500억달러(약 366조원) 규모의 금융 보증 제공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엔비디아가 AI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은 이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는 이 같은 거래 방식이 AI 거품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 이해운 기자 기사 A3면

친명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조정식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
野 “드디어 검은 속내 드러내”



“내년이 개헌의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을 위한 헌법 개정은

조정식(사진) 국회의장이 28일 현재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드디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친명 핵심 인사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담회에서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이 문제를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대통령 연임도 개헌 안에서 아수라국 특이한데, 헌법개정안이 위원회나 개헌특별위를 통해 결정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조 의장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 후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공격에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 안 되는 것이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논제인 커지자 "조 의장은 헌법 제 128조 제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헌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은 취지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이 이어져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총리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요새 사람들이 ‘5년이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작년 10월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노석조·김승재 기자 기사 A4면



28일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이 폭발로 무너져 건물 뼈대가 드러나 있다. 이 사고로 직원 등 수십 명이 실종됐고, 사망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日 구마모토 강진에 쇼핑몰 붕괴… “수십명 실종”

규모 7.1 지진으로 건물 1층 폭발
日경찰 “사망자 다수 나올 수도”

28일 오후 4시 27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진원지는 구마모토현 우키시 깊이 10km 지점이다. 우키시와 히카와초에선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지진의 절대적인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달리 진도는 일본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을 수치화한 단계로, 최고 단계인 7은 자기 의지

대로 움직이거나 서 있기 어려운 수준을 뜻한다. 내진에 취약한 건물은 붕괴할 수 있다.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지진으로 구마모토시 남동쪽 각 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 이온몰(AEON MALL)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실종된 상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온몰 1층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건물 2층이 붕괴했다. 이날 영업 중이었던 이온몰은 지진 발생 직후 방문객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온몰 측은 “고객들을 대피시킨

뒤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일본 언론은 경찰을 인용해 "직원 등 20~30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TBS는 "꽤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집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붕괴된 이온몰 건물 내부에 생존자가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온몰에 갇혀 있는 직원의 한 지인은 “직원과 연락이 닿았으며, 건물 내부에는 현재 여러 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이온몰 구조 작업에는 자위대가 투입됐다.

A2면에 계속
=권태완 기자

‘실탄’ 없는 중기관총으로 GP 경계 서는 軍



육군 1군단, 을초 내부지침 변경
총 옆에 탄통 두고 결합은 안 해

북한과 마주한 서부 전선 최전방에 위치해 서울 방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육군 1군단이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K6 중(重)기관총(사진)'에 실탄이 든 탄띠를 걸어 두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실탄을 총기에 결합해 두지 않으면 유사시 즉각적 대처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북한군이 치료 매설과 절조망 설치 등을 위해 수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남하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경계 태세 약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군단 등 전방 군단들을 관할하는 육

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경계 근무 시 기관총에 여러 개의 실탄이 연결된 탄피를 걸어 두는 ‘삽탄(插彈) 상태 유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경계 근무 지침을 변경해 K6 중기관총에 삽탄을 하지 않고, 탄피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의 최전방 핵심
공용화기로, 북한군이 우리 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하는 등의 유사시 대응에 쓰인
다. 삽탄이 돼있지 않으면 상황 발생 후
우선 탄통에서 탄피를 꺼내 K6 중기관
총에 걸어서 비로소 사격이 가능해진다.

1군단 측은 지침을 변경한 이유를 묻는 본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방 경계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본지에 "합참은 관련 지침 변경에 대해 1군단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A6면에 계속

양지호 기자 A6면에 계속

CHA UNIVERSITY 차 의과학대학교

CHA 의과학대학교 차병원

2027 | 국내 유일 의전원, 의과학자 양성
약학·간호학 외 전공 자율선택제

차 의과학대학교 의전원·학부 신입생 모집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간호대학

· 약학과

· 간호학과

글로벌미래인재대학

- 세포·유전자재생의학 전공
- 시스템생명과학 전공
- 바이오식의약학 전공
- 디지털보건의료 전공
- 경영학 전공
- 스포츠의학 전공
- AI의료홍보미디어 전공
- AI의료데이터학 전공
- 심리학 전공
- 소프트웨어융합 전공
- 미술치료 전공
- 글로벌융합학부

+ 7개국

96개 의료기관

| 국가 재정지원사업 다수 선정

| 국내 의료기관

- 강남차병원
- 분당차병원
- 일산차병원
- 구미차병원
- 차울
- 차 여성의학연구소 강남/서울역/분당/잠실/일산/마곡/대구 등

| 글로벌 의료기관

- 할리우드(LA) 차병원 (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 호주 시티 퍼틸리티 (City Fertility)
-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 (Singapore Medical Group, 싱가포르 등 3개국)
- 일본 토탈 셀 클리닉 (Total Cell Clinic, 도쿄)

| 기업

- 차바이오맥
- 차시헬스케어
- CMG제약 등

학부 수시모집 원서 접수 | 2026. 9. 7(월)~11(금) 의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 2026. 8. 4(화)~6(목) 입학문의 | 1899-2010